

최상위 11월 모의평가 총평 및 해설

출제자의 전체적 조망

- 상당히 쉬운 문항 다수와, 소수의 까다로운 문항을 조합하여 적당한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의평가를 출제하려 함.
-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예고된 source와는 또 다른 개념을 사용해 출제함(ex. 13번, 15번, 16번, 19번 외).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과 윤리 출제 기조에 맞춤.
- 의도한 문항 난이도 구성은 다음과 같음.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中	上	中	下	下	中	下	下	中	下
문항 번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난이도	下	下	中	下	中	下	中	上	中	上
상문항 개수	3									
중문항 개수	8									
하문항 개수	9									

- 수능 표본으로 시행 시 의도한 등급 컷은 다음과 같음. (9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까다로움)

등급	점수	백분위
만점	50	100
1	41	96
2	38	91
3	35	78
4	32	61
5	25	40
6	20	23
7	13	10
8	8	5

- 제시문 독해를 통해 푸는 문항은 해설을 생략함. 질문 사항은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 고난도 best 3문항은 상세 해설을 제공함.
- 이외 모든 문항도 해설을 제공함.

문항 해설

1. 윤리학의 분류 → ‘다양한 윤리학의 등장 배경 및 등장 순서를 이해하는가?’

- 제시문의 (가)는 실천 규범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 (다)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 메타 윤리학의 등장 배경 :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가?’를 묻는 ‘윤리학적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윤리적 명제를 분석하는 메타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근세 자연과학의 발달 이후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분야에서의 제반 성과는 전통적 규범 윤리학의 도덕적 입론의 제반 근거들을 회의어린 눈길로 바라보게 하였고, 급기야는 “전통적 윤리학은 주로 주관에 기초하는 가치관련적인 성과의 독단적 일반화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혀 학문적, 객관적 토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이른바 윤리학적 회의론을 태동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윤리학적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윤리적 명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명제의 실천적 내용과 규범성 그리고 지시적 내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명제의 개념적 명석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검증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명제, 즉 의미의 명석함이 드러나는 새로운 윤리적 명제를 얻고자 시도함이 소위 말하는 메타윤리학이다. ...(후략)...

- 실천 규범 윤리학의 등장 배경 :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 다양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학문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었다.

2. 사회 복지 문제와 윤리 → ‘공리주의와 롤스의 분배 정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상세해설)

- 본 시험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문항이다. 분배 정의는 수능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출제 의도는 공리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갑이 7을 선택할지 2을 선택할지 고르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답을 가르는 매력적인 오답 선지는 7이었다.
- 제시문 분석은 전체적으로 까다롭지 않았을 것이다. 제시문에서 갑은 공리주의적 입장이라고만 독해하면 되며, ‘유용성’, ‘최대의 행복’과 같은 뻔한 키워드들이 등장하므로 이를 추론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윤리와 사상 범위까지 고려할 때, 갑은 규칙 공리주의적 입장이지만, 생활과 윤리의 교과과정 내에서 규칙 공리주의와 전통적 공리주의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을은 롤스이다. 기출에서 수도 없이 반복된 롤스의 핵심적 개념을 담고 있는 제시문이다. 제시문 상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꼭 체크해두도록 하자. 사례 속 A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상류층에 대한 증세 정책을 실시했다. 해당 정책으로 상류층의 만족도는 감소했지만,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 7. 사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이 있음을 보여주므로 지지한다. 본 문항의 매력적인 오답 선지이자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핵심 선지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사익의 총합은

곧 공익이다. (구성원 1의 이익+구성원 2의 이익+구성원 3의 이익+...구성원 N의 이익=사회 전체의 이익=공익) 따라서 사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이라는 표현은 존재 자체가 모순이다. 해당 선지는 2015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9번 문항에서 발췌한 것이다.

- **ㄴ. 장기적인 공익의 창출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므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A 국가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따라 해당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으며 반대할 수도 있다.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그럼 무조건 증가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리주의적 입장이 문항에 등장했을 경우에는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 **ㄷ. 특정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전제하므로 지지한다.** 롤스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무지의 베일을 쓴 가상적 계약 상황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를 고려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는 분배 원리에 모두 동의한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은 특정한 상황, 즉 가상적 계약 상황에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 확실하기에 그는 해당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ㄹ.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므로 반대한다.** 롤스의 입장에서 옳은 논거이다. 롤스는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절대 부정한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롤스의 기본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3. 전통 윤리의 본질과 기본 이론 → ‘생소한 일화에 담긴 도가의 사상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제시문은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조삼모사’ 일화이다. ‘명목이나 실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화를 내다가 기뻐했다. 이것 역시 원숭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따른 것[因是]일 뿐이다.’에서 제시문의 사상적 입장이 도가임을 파악할 수 있다.
- ① 도(道)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은 도가의 삶의 태도가 맞지만, 충(忠)의 정신은 유교에서 강조되는 덕목이다.
- ② 대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도가의 삶의 태도가 맞지만, 일체의 시비(是非) 논변은 도가에서 극혐한다.
- ③ 도가의 삶의 태도이다.
- ④ 모든 인위적 노력(爲)을 멀리하는 것은 도가의 삶의 태도가 맞지만, 열반(涅槃)을 지향하는 것은 불교의 삶의 태도이다.
- ⑤ 무욕(無慾)에 이르는 것은 도가의 소박한 삶의 태도가 맞지만,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닫는 것은 불교의 삶의 태도이다.

4. 생략(제시문 독해로 푸는 문제)

5. 생략(제시문 독해로 푸는 문제)

6. 죽음의 윤리적 의미 → ‘생소한 제시문을 파악하고 불교의 죽음관을 찾을 수 있는가?’

- 제시문은 불교의 사상적 입장을 담고 있다. 두 제시문은 각각 불교의 변화무쌍한 세계관, 일심(一心)사상을 담고 있다.
- ① 불교의 입장에서 변화무쌍한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는 불교에서 오답 선지로 빈출하는 키워드이니 꼭 알아두자.
- ② 도가의 죽음관이다.
- ③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입장은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禮)를 바탕으로 죽음을 기리는 입장은 유교이다.
- ④ 불교의 죽음관이다.
- ⑤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영향을 받아 고대 유물론·고대 원자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7. 생략(제시문 독해로 푸는 문제)

8. **직업 생활과 윤리** → ‘맹자와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직업관을 이해하고 있는가?’

- 제시문의 (가)는 맹자, (나)는 마르크스이다.
- X: 맹자만이 사회적 분업을 통한 질서 유지를 강조한다.
- Y: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화된 노동을 비판하는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 Z: 필요에 따른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9. **국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 → ‘현실주의적 입장의 평화를 위한 해결 과제를 알고 있는가?’

- 제시문의 당구공 모델을 통해 현실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 제시문은 EBS 연계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능완성, 129쪽)

10. **예술과 윤리의 상호 연관성** → ‘절대적 심미주의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 제시문은 와일드의 사상적 입장이며, 절대적 심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해당 제시문은 EBS 연계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능완성, 104쪽)

11. 생략(제시문 독해로 푸는 문제)

12. 생략(제시문 독해로 푸는 문제)

13. **전통 윤리 + 신체와 윤리** → ‘도가의 입장에서 성형 수술에 대해 취할 입장을 추론할 수 있는가?’

- 제시문은 장자의 사상적 입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의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피하지도 않는다.’ 등의 부분에서 도가의 사상적 입장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제시문은 2009학년도 9월 윤리 1번 문항에서 발췌한 것이다.
- [가로 열쇠]의 (A)는 성품, (B)는 종신형, (C)는 수총각, (D)는 기술이다. 따라서 [세로 열쇠]의 (A)는 성형수술이다.
- 도가의 사상적 입장에서 성형 수술을 비판하는 문제가 EBS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다. (수능특강, 50쪽)

14. **전통 윤리+가족 관계와 윤리** → ‘다양한 관계에서 요구하는 전통적 덕목을 이해하고 있는가?’

- 제시문은 부자·군신·부부·장유·봉우 간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당 제시문은 2009학년도 9월 윤리 13번에서 발췌한 것이며, 현행 생활과 윤리 과목에 맞게

좀 더 구성 상 난이도를 올렸다.

- ㉠은 효(孝)이다. 부모 간에는 부모의 자식 사랑인 자(慈)와 자식으로 행해야 할 도리인 효를 통해 서로 호혜적으로 친애해야 한다. ㉡은 충(忠), ㉢은 별(別), ㉣은 서(序), ㉤은 신(信)이다. 각각 맹자가 제시한 오륜(五倫)의 덕목을 나타내고 있다.
- ①, ④, ⑤는 유교의 어떠한 덕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다.
② 유교에서 충(忠)과 서(恕)는 공자가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다. 충은 자신의 참된 마음을 다하는 것이며, 서는 참된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③ 낯선 어휘가 등장하였다. 종법제란 장남의 상속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자손을 직계와 방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며, 종친회는 동성동본의 부계 친족 모임이다. 둘 다 부부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별(別)과는 전혀 상관없다. 후시 어휘를 몰랐다 하더라도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15. 서구적 자연관과 환경 문제 → '생소한 제시문 속에 담긴 기계론적 자연관을 파악할 수 있는가?'

- 갑은 인간 기계론을 주장한 라메트리이며, '인간은 사실상 ~ 복잡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을은 동물 기계론을 주장한 데카르트이며, '사유하는 실체로서의 나', '신체와 정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심신이원론).' 등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 ① 라메트리만의 입장이다.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정신적 존재이며, 인간 외 자연의 모든 존재가 의식이 없는 복잡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②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 및 생태 중심주의에 가까운 선지이다. 라메트리, 데카르트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입장이다.
③ 플라톤의 자연관이다. 라메트리, 데카르트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입장이다. 플라톤의 자연관은 현재까지 평가원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만, 교과서에 언급된 부분이다. 상당히 비중있게 서술된 부분이므로 한번쯤 봐두자.

고대 그리스인은 모든 자연물에는 신성(神性)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으며, 인간에게는 신에 의해 창조된 자연을 변형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스 시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데아(idea)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면서, 현실은 이데아의 모방이므로 이데아만큼 완전하거나 아름답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현실이 진실하고 영원한 이데아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 개개인의 영혼을 조화시키듯 폴리스에서 각자의 덕목을 조화시킬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자연 세계에 조화로운 질서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플라톤은 조화로운 질서를 갖는 코스모스(cosmos)가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인간의 목적 실현도 자연 세계의 조화로운 질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 (후략)...

- ④ 라메트리와 데카르트의 공통된 입장이다. 라메트리와 데카르트는 모두 자연의 변화를 기계론적 인과 관계로 파악하고, 자연은 생명 없는 물질적 재료로

간주함으로 자연과의 조화가 아닌 자연의 극복·이용을 강조한다.

⑤ 불교의 자연관이다. 라메트리, 데카르트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입장이다.

16. 생략(별도의 개념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시문 독해로 푸는 문제는 해설 생략)

17. **민본 사상과 위민 정신 → '민본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는가?'**

- 갑은 덕치(德治)를 바탕으로 민본주의를 강조한 공자이며, '그대가 선을 원하면 백성은 선해진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을은 대의 민주주의적 입장이며, '시민들은 자격 있는 대표를 뽑아 정책 결정을 일임해야 한다.'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 ㄱ. 민본주의에만 해당하는 선지이다. 보통 자유주의와 결합되는 민주주의에서는 통치자가 피치자의 삶의 방식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당 선지는 EBS 연계교재에서 발췌한 것이다. (수능특강, 183쪽)
 - ㄴ. 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선지이다. 민주주의는 선거권을 통해 피치자가 정기적으로 통치자를 교체할 권리를 인정한다. 해당 선지는 민본주의의 대표적인 오답 선지로 자주 등장한다. 공자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역성혁명을 주장한 맹자조차 통치자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역성혁명은 위정자가 비도덕적으로 통치할 때만 허용되는 권리이다.
 - ㄷ. 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선지이다. 민본주의에는 당연히 통치자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발하지 않는다.
 - ㄹ. 민본주의, 대의 민주주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이며, 올바른 제시문 독해를 요구하는 선지이다. 을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시문 상으로도 분명 '자격 있는 대표를 뽑아 정책 결정을 일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갑, 을 모두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정책의 결정자는 통치자이다.

18.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 '니부어의 사회 윤리적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상세해설]

- 18번 문항은 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다. 니부어의 사상은 단독 문항으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전통적 킬러 파트중 하나이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집단 간 힘의 차이가 사회 부정의의 원인이다.'라던가 당해 수능의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이 필요하다.'와 같은 생소한 표현들이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다. 올해도 니부어의 사상에 대한 문항은 만만치 않게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본 시험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ㄱ과 ㄴ를 통해 니부어의 사상 중 상당히 생소한 개념을 묻고 있다. 니부어의 사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생소한 표현이 출제되었을 때 논리력과 판단력을 통해 정답을 찾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가) 제시문은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발췌한 것이다. 집단의 이기적 특성을 강조하는 니부어의 사상은 제시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마치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계급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하지만 제시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다수, 즉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힘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시문의 사상가가 니부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설령 제시문의 사상가가 니부어라는 것을 추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선지를 통해 사상가가 니부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다. 모든 선지에

‘집단’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어 누가 봐도 니부어 문제라는 냄새가 풀풀 난다.

-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반드시 최소화해야 하는가?** 연계교재에 등장한 생소한 선지이다. 해당 선지는 연계 교재를 활용한 것이다.(수능완성, 10쪽) 연계교재의 심화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는 표현은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등장하였다.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니부어의 입장을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럼 강제력을 최대화해야겠네!’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니부어는 강제력, 그것도 아무 강제력이 아니라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최소한’만 사용함으로써 ‘집단 간 힘의 차이’로 인한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했다. 꼭 알아두자.

- **개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합리적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가?** 어렵지 않은 선지이다. 기출에서 등장한 선지는 아니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개념상으로 짊고 넘어가는 부분이라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니부어의 대표 저서의 이름부터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이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개인은 충분히 도덕성의 함양을 통해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성을 기초로 한 담론을 통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집단 간 힘의 차이로 인한 사회 부정의가 생길 때일 뿐이다. 2015학년도 9월에서 수능으로 이어지는 니부어 문항 킬러 선지의 논리적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힌데 평가원의 센스에 감탄해 눈물이 날 지경이다.
- **개인의 도덕적 이상을 위해 집단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가?** 본 문항의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핵심 선지이다. 해당 선지는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이다.(천재교육, 19쪽)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개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도덕의 숭고한 규범들에 충실해야 할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명백히 악한 방향으로 기울 때에는 그 집단을 벗어남으로써 자신들의 개인적 이상을 지켜야 할 것이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니부어가 이런 말을 했다니... 하지만 이 또한 다 사상적 배경이 있다. 니부어는 생활과 윤리에서 흔히 배우듯 사회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한 정치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이기도 하다. 즉 니부어의 입장에서 개인적 이상은 종교적 신념이 될 수 있다. 니부어는 이와 같이 소속된 집단에서 자신의 종교를 배척할 경우 해당 집단에서 벗어날 최소한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교과서에서 언급된 개념이기도

하니까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집단과 개인의 입장 간에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는가?** 페이크 킬러 선지이다. 니부어의 사상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조화’이다. 궁극적으로 니부어는 집단과 개인의 조화를 추구하지, 양자 사이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별거 아닌 개념이지만, 상당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주자. 이 역시 교과서에 표현된 개념을 선지화한 것이다.(천재교육, 19쪽) 새삼 교과서를 무시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심 선지이다. 해당 선지는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이다.(천재교육, 19쪽)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인간 사회를 둘러싸는 문제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되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중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

위 부분에서만 해도 수능에 출제되는 핵심 선지들이 쏟아지고 있다. 집에 처박아둔 교과서를 한번 꺼내서 다시 읽어보자. 생각보다 출제될만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여담으로, 이러한 조화의 논리는 생활과 윤리 과목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헌팅턴의 경우 ‘문명의 충돌’을 주장했지만, 헌팅턴은 문명의 조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역설하였다.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두자.

19. 전통 의례 → ‘제례와 상례를 구분할 수 있는가?’

- 제시문은 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당 제시문은 EBS 연계교재에서 발췌한 것이다. (수능완성, 50쪽)
- ① 상례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제례가 조상에 대한 보분의식을 표현하는 의례인 것은 맞지만, 초례(醮禮)는 혼례의 절차 중 하나이다.
- ③ 혼례에 대한 설명이다.
- ④ 도가의 죽음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합집산=취산이합: 모였다가 흩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짐
- ⑤ 제례에 대한 설명이다. 후손은 제례를 통해 돌아가신 조상과 가족관계의 연속성을 갈망할 수 있다.

20. 인간 중심주의와 탈인간 중심주의 → 다양한 환경 윤리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상세해설]

- 20번 문항은 본 시험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항이다. 환경 윤리 파트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입장의 특징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되어 보통 최저

정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데다가 벤 다이어그램 자체의 문제 유형 상 각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하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파트이므로 수능 전까지 완벽하게 익혀놓아야 한다.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유형 역시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 유형은 임용시험에서 출제된 유형으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마지막을 장식하는 킬러 문제로서의 위엄을 위해, 또 수험생들의 색다른 경험을 위해 한 번 넣어 보았다. 틀렸다고 절대 좌절하지 말자.

- 제시문 분석은 아마 전체적으로 평이했을 것이다. (가)는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내포된 한계를 지적하고, 유교, 불교, 도가로 대표되는 동양적 자연관을 통해 문명사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태학적 사상을 발견해 낸 케프라의 입장이다. 케프라는 생소한 사상가이므로 유기체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탈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라고만 추론해내면 된다. (나)는 EBS 교재에서 발췌한 것이다.(N제, 37쪽) 연계 교재가 아니므로 꼭 풀지 않아도 되는 교재이다. EBS 해설에도 본 제시문이 어떤 사상가의 주장이며, 출처가 어디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제시문 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생태계 구성원의 가치를 판단하는 입장이라고만 추론해 내면 된다. (다)는 전형적인 테일러의 제시문이다. 모든 생명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테일러 사상의 기본이자 핵심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아직까지 테일러를 잘 모른다면 반드시 테일러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자. (라)는 맥클로스키의 주장이다. 역시 생소한 사상가이므로 제시문을 통해 입장만 즉석에서 체크하면 된다. 맥클로스키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선시하며,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적 윤리를 통해서도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사상가이다. 패스모어의 논거랑 상당히 흡사하므로 한 번쯤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 (가), (다)는 탈인간 중심주의적 견해를 담고 있다. …(중략)…반면 (나). (라)는 인간 중심주의적 견해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주의 // 탈인간 중심주의로 각 제시문을 옳게 나누었으므로 견해 분류에서 2점을 획득한다. 한편, 특징 서술에서는 (가)와 (라)에 대해서만 옳게 서술해 4점을 획득한다. 따라서 학생이 획득한 총 점수는 6점이다. 옳은 서술의 경우 생소한 두 사상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자. (가)는 근대 서구의 고전역학이 지닌 환원론적 세계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준다. 즉, 환경 위기의 해결을 위한 실체론적 자연관의 극복과 인간을 생명의 그물에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려는 정신적 자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략)… (라)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선하며, 전통적 윤리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물에게는 권리를 행사할만한 어떠한 능력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중시한다.
- (다)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 간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계가 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스스로의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중시한다. 붉은색 부분이 잘못 서술되었다. 생활과 윤리 범위 내에서 인간 이외의 도덕적 행위의 주체를 인정하는 사상가는 없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이성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인간뿐이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가 동물, 식물, 무생물 등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 함정은 생활과 윤리에 대한 학습을 조금만 깊게 했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나)는 오직 인간만이 가치의 근원이며 생태계 구성원의 가치는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가치가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시 붉은색 부분이 잘못 서술되었다.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즉 수단적 가치로 파악되는 대상의 범위에는 보통 인간이 제외되어있다. 따라서 (나)와 같은, 인간을 위해 생명의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하는 사상의 입장에서는 생태계 구성원 중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 즉 동물, 식물, 자연 내의 무생물의 가치만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포착할 것이다.
- 잘못 서술된 함정 부분들은 사실 개별 선지로 나오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밑줄 친 부분으로 한정되지도 않은 긴 글 속에서 오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